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계론과 배치의 교육학

최 승 현 서 범 종
충북대학교

<요 약>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기하는 느리고, 경험적인 교육은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지속을 경험해야만 가능하다. 잠재성과 현실성의 짝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의 주체성은 ‘기계’로 표현된다. ‘기계’의 주체성은 생성 자체이다. 클라우드 상 어디에나 존재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보사회의 주체성 또한 정보사회 자체이다. 정보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주체성의 발현에 앞서 관리하는 사회로 기울 위험을 안고 있다. ‘기계’는 언표적 배치와 기계적 배치로 이루어져 있다. 배치론에 입각한 사회과학은 반복되는 패턴, 언어성과 물질성의 공존, 경계에 대한 주의, 총체적 전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시간 속에서 집합적 패턴이 구조적으로 변형되어 가는 양상을 띠는 배치의 교육학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본래 문제의식인 느리고, 경험적인 교육에 부합한다. 또, ‘교육-기계’의 물질성과 언표성을 고찰하는 작업은 탈인간 시대의 새로운 학습론, 교육론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탈인간, 들뢰즈와 가타리, 기계, 배치, 교육학, 정보사회

I. 머리말

탈인간(transhuman)의 시대, 교육학 연구에 어떤 새로움이 도래할 것인가? 피어슨(Pearson, 1997)은 오늘날 “인공지능 로봇과 기계의 도래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찬사가 만들어 내는 인간중심주의적 자만심”을 경고한다. 그에 따르면 탈인간은 문화적 유전자(cultural meme)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조건이나 기술론적인 조건과 같이 명백히 경험적인 것 - 정확히는 자본주의적인 것- 으로 이 문제를 환원시키는 일에 저항해야 한다. 이를 위한 거점은 “여전히 재평가와 가치 전복을 필요로 하는 인간과 그 계보학적 과거”에 대한 탐구로서, 기술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따위의 “완벽한 역사적 내재성을 향한 욕망”에 맞서야 한다.(Pearson, 1997/최승현, 2019: 11-13)¹⁾

이 글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계’론(machinism)이 유기적 총체성하에 사회를 보는 입장에 반대하는 ‘외부성’(extériorité)의 사회과학에 기여함으로써, 탈인간 시대의 학습론, 교육론 확립에 기여함을 보여주하고자 한다.²⁾ 이는 문화적 훈육으로서의 교육을 대체할 “느린, 경험적인 교육”이라는 말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한 교육학은 ‘시간 속에서’의 경험, 곧 ‘지속’(durée)에 주목하며, 속도와 양으로 상징되는 기술환원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맥락에서 제기된다.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사물의 운동에 대한 주목은 현실적 경향과 잠재적 경향이 공존하는 세계를 그려냄으로써 기계론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주체성에 저항한다.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새로운 교육의 주체성은 ‘기계’ 개념으로 표현된다. ‘기

1) 피어슨은 ‘비인간’(inhuman)을 인간중심주의적인 것을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탈인간을 상이한 종(種) 간에 벌어지는 들뢰즈와 가타리적 의미의 ‘생성’(devenir) -진화(evolution)와 절화(involution) 간의 교차에 따른- 혹은 ‘횡적인=trans’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한정적으로 사용한다. 장대익(2019: 26 참고)에 따르면 진화는 펼쳐짐(unfolding)의 뜻을 담고 있어서 가치론적 낱양스를 가진 진보라는 함의도 갖는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절화’는 펼쳐짐에 대응되는 접힘(folding)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 글에서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계’론에 작은따옴표를 붙여 메카닉적인 것, 곧 일상적인 의미의 기계와 구별하기로 한다.

계’는 물질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이 상호작용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일시적 생성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늘 생성하는 기계라는 점에서 생성 자체가 ‘기계’의 주체성이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상에서 빅데이터가 무의식적으로 수집되는 오늘날, 이 사회의 주체는 인간도, 인공지능도 아닌 정보사회 자체이다. 정보사회는 소수 엘리트가 주도하던 과거의 위계적이고 총체화된 사회 모델을 대체하는 네트워크적 사회 모델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지만 개인의 욕망마저도 관리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이 사회는 유전정보를 비롯한 모든 것을 코드화하여 자본의 흐름에 편입시킨다. 개인을 쪼갤 수 있는 존재로, 학교의 논리를 기업의 논리로 바꾸어 놓는 것이 이 사회의 특징이다. 이렇듯 ‘기계’와 정보사회의 주체성은 생성으로의 열림과 자본에의 복속이라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마누엘 데란다(Manuel DeLanda, 2006)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계’ 개념에 들러붙은 배치론을 응용하여 유기적 총체성에 갇힌 사회과학을 대체할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의 일상적 대화에 대한 분석과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장기간에 걸친 도시 변화에 대한 논의는 배치론과 공명하는 탁월한 사례들이다. 그는 이 논의들을 예로 삼아 네트워크 자체의 고유성을 가지면서도 총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과학을 세우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배치의 사회과학을 좇아 ‘배치의 교육학’을 논할 수 있다. 배치의 사회과학은 반복되는 패턴, 언어성과 물질성의 공존, 경계에 대한 주의, 총체적 전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기존의 유기체적 총체성을 지향하는 사회과학들과 변별된다. 언표적 배치와 기계적 배치의 공존 위에 서 있는 보가드(Bogard, 2009)의 ‘교육-기계’(education-machine)는 ‘배치의 교육학’을 사유하기 위한 출발점인 동시에 생명권력에 ‘생명 정치적 생산’(bio-political production)을 맞세우는 기획이다.

최근 들어 들뢰즈와 가타리의 배치론에 부합하는 여러 교육학 연구가 나오고 있다. 파시니- 케처버(Pacini-ketchabaw, V. and Kocher, L. and Kind, S., 2016)를 비롯한 세 명의 저자가 쓴 『유아교육에서 물질과의 만남』(Encounters

with Material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은 자연에 편재하는 종이, 물감, 목탄, 점토, 블록의 본래 물질성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캐나다 유아교육 현장의 형식화된 스튜디오와 아틀리에를 재창조하고자 한다. 호주의 연구자 콜(Cole, 2011)은 『교육적 삶의 양식: 들뢰즈적 가르침과 배움의 실천』(Educational Life-Forms)에서 미시세계의 바이러스와 거시세계의 태풍에 이르는 탈인간적인 존재들에 영감을 얻어 배우는 이의 감응(affection)을 중심으로 중등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한승희(2019: 150) 또한 『교육이 창조한 세계: 학습활동에서 교육체계로의 진화』에서 마투라나와 바렐라(Maturana and Varela, 1984/최호영, 2007)의 논의를 좇아 “학습은 단순 복사로 이루어지는 카피가 아니며,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생각의 모방 속에서 일종의 ‘창발성’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활동”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논의는 진화론과 구조주의, 복잡계 이론과 뇌과학 등 최신 과학 담론을 바탕으로 학습과 교육을 새롭게 사유하고자 하는 현대 교육학의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 글은 여러 연구자들이 훌륭하게 펼쳐온 논의들을 ‘배치의 교육학’이라는 이름으로 감싸는/되접는(enfold) 작업이다. 이에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느린, 경험적인 교육’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문제의식을 담은 ‘기계’적 주체성과 정보사회의 주체성이 동일함을 살펴보고, ‘기계’의 배치성을 응용한 데란다가 말하는 배치의 사회과학의 특징을 확인한다. 둘째, 배치의 사회과학은 집합적 패턴이 구조적으로 변형되어 가는 양상을 띠는 ‘배치의 교육학’과 ‘교육-기계’의 조건을 사유하는 준거가 된다. 우리는 이를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학습론과 교육론에 응용할 수 있다. 결국 이 논의는 내적으로 들뢰즈와 가타리에 영감을 얻은 교육학 연구를 개념의 수준 - ‘배치의 교육학’- 에서 포착하는 한편, 외적으로 탈인간 시대에 제기되는 이질적인 교육학 연구들을 접속시킴으로써 현대교육학의 새로운 조감도를 얻기 위한 시론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II.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계’론

1. 느린, 경험적인 교육

피어슨(Pearson, 1999/이정우, 2005: 35)은 들뢰즈 철학의 과제가 무엇보다도 실험적이고 윤리적인 교육학, 곧 “느린, 경험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육학을 펼치는 일이라고 본다.¹⁾ 이렇듯 『차이와 반복』(*Différence et Répétition*, 1968/2004)에서 제기된 느리고, 경험적인 교육은 어떤 논리를 따를까? 느리고, 경험적인 교육이 비판하는 대상은 무엇일까? 나아가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을 어떤 교육학으로 명명할 수 있을까?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의 고원』(*Mille Plateaux*, 1980/2001)에서도 문화적 훈육으로서의 교육을 비판한다. “한 개인에게 강요한 잦다한 형식의 교육이나 ‘정상화’는 그 개인이 주체화의 점을 변화시키도록 만든다. 항상 더 높게, 항상 더 고귀하게, 가정된 이상(理想)에 항상 더 잘 순응하도록.”(Deleuze et Guattari, 1980/김재인, 2001: 250) 사회가 세운 이상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적 훈육으로서의 교육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을 공산품이나 상품을 만들어내는 원리에 입각한 근대교육학에 대한 비판에서 종종 접한다. ‘국민 만들기, 표준화, 평균화, 경쟁’ 등의 담론은 오늘날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과제이다.²⁾

1) 피어슨은 『차이와 반복』(1968/2004)에서의 다음 진술을 토대로 ‘느린, 경험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학을 말한다. “본연의 문제나 이념 그 자체를 규정해야 하는 순간, 변증법이 작동해야 하는 순간, **이것은 무엇인가?**는 무력해지고, 따라서 보기 드물게 효과적이고 강력한 물음들, 그야말로 명령의 힘을 지닌 물음들에 자리를 내준다. 곧,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경우에?’ 등의 물음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 이는 아마 그런 대화들이 단지 교육학적인 목표만을 겨냥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문제 일반의 영역을 열어놓되, 그 문제를 본연의 문제나 이념으로 규정하는 임무와 노력은 다른 절차들에 떠넘기는 데 그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반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을 때, 변증술[문답법] 전체가 자신에 대한 교육학적 입문의 절차와 혼동되었을 때 지극히 유감스러운 귀결점들에 이르게 되었다.”(Deleuze, 1968: 243/김상환, 2004: 409, 강조는 저자)

2) 이에 관한 최근의 대표적 논의로는 켄 로빈슨(Robinson, 2015)과 토드 로즈(Rose, 2015)를 참고할 것.

들뢰즈의 베르그송에 대한 독해는 ‘느린, 경험적인 교육학’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들뢰즈에게 도덕은 초월성에 기반하는 것인 반면 윤리는 내재성에 기반한다. 초월성은 재현, 동일성과 나란한 것, 곧 영구불변의 것이다. 질료(matter)와 형상(Form=eidos)의 결합에 따라 파악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substance)는 영구불변의 형상을 상정한다. 말(馬)이 ‘다른 것이 아닌’ 말일 수 있는 것은 형상 덕분이다. 반면 내재성은 집끄는 말과 일하는 소 사이에 그어진 대립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통점과 차이에 주목한다. 집끄는 말과 일하는 소는 실체적 시각에서 볼 때에는 말과 소라는 대립항이지만 그 내적 ‘역능’(puissance)에 있어서 양자의 거리는 달리는 말보다 가깝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세계관에 반(反)하는 베르그송은 “물질 자체의 윤리학을 사유하려는 모험”(Pearson, 1999/이정우, 2005: 28-30)을 감행한다. 그가 보기에 물질을 비롯한 자연은 모두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시간 속에서 한 번의 경험은 되돌릴 수 없다. 이때의 경험은 비가역적이며 끊어지지 않는 것, 곧 ‘지속’적인 것이다. 베르그송은 지속을 통해 “한 사물의 실존은 그것의 본질에서 연역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여기서 본질이란 시간 바깥에 존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를 가리킨다. 반면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개별 사물이나 사태만을 기준으로 삼는 실체가 아닌, 사물들과 사건들의 관계 자체를 사유하는 일이다. 바꿔 말해, 이는 그것들의 관계맺음 속에서 발생하는 창조적 과정과 잠재적인 생성의 영역을 탐구한다. 물질 자체의 윤리학이란 결국 비-유기적 생명과 유기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입각해 벌어지는 지속, 곧 생명의 지속을 사유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베르그송은 설탕 덩어리라는 평범한 예를 든다. 설탕 덩어리를 단지 공간적 조직화에 입각해 파악한다면 그것과 다른 것들 사이의 정도 차이만을 알 수 있을 뿐이지만, 설탕을 고유의 리듬에 입각해 본다면, 설탕이 녹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질적 차이와 설탕 자체가 변하는 내적 차이를 알 수 있다. 설탕을 바라보는 나의 행위 또한 자체의 리듬을 가질 것이다.

여기서 질적으로 다른 설탕과 나의 공통 환경은 바로 지속일 것이다.

베르그송과 들뢰즈가 보기에 질적 차이들은 지속이 아니고서는 자리 잡을 곳이 없다. 지속 ‘내에만’ 존재할 수 있는 질적 차이들. 따라서 지속은 질적 차이들의 복수성이자 총체성이다. 이를 사유할 수 있어야만 공간화된 시간의 모델로 대상을 환원하는 기계론을 근본적 수준에서 비판할 수 있다. “기계론적 모델에 있어 존재들 혹은 생명체들은 정도상의 차이들(위치, 차원, 비례)을 통해서만 표상된다. 근대 진화론을 한계 짓고 있는 것은 기계론이다. 이 진화론은 하나의 생명계가 단순한 정도상의 전이들과 변이들을 통해서 다른 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는 단선적인 모델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사물의 운동과 사태의 발생은 오로지 경향들로만 파악될 수 있다. 운동이야말로 이 경향의 형성에서 일차적인 것으로, 시간 속에서 특정한 경향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문제는 운동을 통해 드러나는 실재(reality)는 늘 “차이나는 두 질서들 사이의 차이를 포함하는” 이중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해, 이때의 실재는 자연적 분절의 선을 따라 마름질되는 경향과 발산 및 수렴을 허용하는 잠재적인(virtual) 점을 형성하는 경향을 동시에 띤다(Pearson, 1999/이정우, 2005: 63).

들뢰즈에게 잠재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되는 가상성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것이다. 그에게 잠재적인 것은 반드시 물질성을 수반하는 운동이 벌어지는 영역으로서 현실화된 것, 즉 ‘현실성’(actuality)과 짝을 이룬다. 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상식적 의미의 가상성과 통하는 것을 들뢰즈는 ‘가능성’(possibility)으로 부른다. 이 가능성은 알고 보면 ‘상상작용’(imaginary)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재하지도 않는 것을 상상한다는 의미의 가능성과 짝을 이루는 말은 ‘실현’(realization)이다. 예를 들어, 태권브이라는 ‘상상된’ 동일성이 ‘실현’되는 식이다. ‘잠재성-현실성’의 짝과 ‘가능성-실재성’의 짝. 이렇게 파악되는 잠재적인 경향은 자연적 분절을 따라 마름질된 현실과 달리 발산과 수렴의 교차를 허용함으로써 탁월한 개방계로서, 또 역동적이고 새로운 것의 발명을 허락

하는 조건을 일구어낸다.

그러나 현실적인 물체들의 상태는 우리가 잠재적 경향으로서의 질적 차이를 경험하는 일을 방해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능은 그 구축적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어떤 것을 대하고도 자꾸만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을 보려하는 경향을 띠기 때문이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우리가 이러한 지능의 한계를 넘어 지속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직관이다. 직관 속에는 인간적이면서도 인간을 넘어서는 사유의 윤리학이 담겨 있다. 왜인가? 베르그송은 생명체를 단순한 집합체로 보는 일상적인 눈과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예술적인 눈을 비교하는 예를 든다. 예술가는 고정된 것을 선호하는 “지능과 지속하는 생명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Pearson, 1999/이정우, 2005: 72)는 것이다. 우리는 『차이와 반복』(1968)의 서두에서 들뢰즈가 선언한 “동일자의 재현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모든 힘들”(Deleuze, 1968/김상환, 2004: 18)의 도래에 대한 탁월한 사례가 바로 예술가의 직관임을 눈치챌 수 있다.

예술가의 작업은 빠른가? 아니면 직선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의 작업은 느리고, 복잡한 경험 끝에 작품으로 화(化)하곤 한다. 잠재적이고 질적인 경험은 작품과 글쓰기 그리고 그의 삶에 응축되어 나타난다. 대지미술가인 로버트 스미스슨(Robert Smithson, 1938~1973)의 <나선형 방파제>(1970)는 ‘물질 자체의 윤리학을 사유하려는 모험’을 감행한 사례로 꼽힌다. 오설리번(O’Sullivan, 2006/안구·이규원, 2019: 251-253 참고)은 “스미스슨의 규모가 큰 대지미술은 (물질의 조작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조작, 곧 상이한 시간성들의 결집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68운동’으로 상징되는 서구 선진국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만들어진 이 작품에는 일종의 지질학적 수준의 시간이 작동한다. 스미스슨은 이 작품을 만들 당시 깨진 원의 가운데에 위치한 큰 돌을 이동시키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음을 회고하면서 이를 ‘빙하시대의 경고’라고 칭했다. 그의 작품에는 사계의 시간과 하루의 시간 그리고 기후에 따른 시간 등

상이한 시간들이 공존한다. 여기에 인간의 시간을 더해볼 때, “대지미술은 ‘시간’의 침전 작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상이한 지속들과 우리 자신의 지속을 포함하는 이 작품은 “먼 미래가 먼 과거와 만나는” 장소로서 기능한다. 스미스슨은 「마음의 퇴적작용: 대지 프로젝트」라는 글에서도 지속을 사유한다. “어떤 사물이 시간성의 의식을 통해 보일 때 그것은 무(無)이자 유(有)인 것으로 변한다. … 모든 대상은 비록 정적이라 하더라도 (만약 미술이라면) 시간의 돌진으로 충만하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은 보는 이에 의존한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미술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미술작품을 보는 예술가만이 아는 환희와 공포. 그 바라봄은 시간 안에서 일어난다.”(같은 책, 번역 수정, 강조는 저자) 오설리번은 스미스슨의 작업을 “순수과거(그리고 미래)와 현재의 공존, 곧 간단히 대상으로서 대상을 보는 것과 과정 안에서, 지속으로서 대상을 보는 것의 공존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강조는 저자)고 주장한다.

실험적이고 윤리적인 교육학의 핵심은 직관을 통해 지속을 사유하는 것이다. 만일 직관에 지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능에 불과할 것이다. 지속을 사유하도록 만드는 교육은 문화적 훈육에 따른 마름질된 현실성과 창조적 잠재성의 길항(拮抗)을 통해 형성된다. 우리는 스미스슨의 작품을 통해 이를 볼 수 있었다. 근대교육학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교육학은 문화적 훈육으로서 비판 받아 왔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교육열에 등 떠밀린 각종 제도, 정답 찾기만을 추구하는 활동 그리고 불평등한 사제관계 등은 모두 마름질된 현실성 위에 구축된 오늘날의 교육적 모순들로서 일종의 기계론적이고 환원주의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들뢰즈가 생각한 ‘느린, 경험적인 교육학’은 이러한 환원주의적 성격을 벗어난 주체론과 관계 깊은 것, 바꿔 말해 유기적인 것과 비유기적인 것을 연결 짓고 넘나드는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연구자가 보기에 들뢰즈와 가타리가 평생 다듬은 주체론의 한 판본인 ‘기계’론이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다.

2. ‘기계’의 주체성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는 ‘기계’란 무엇인가? ‘기계’는 어떤 기능을 가졌으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함으로써 기계론의 시사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 개념어 사전』(*Le Vocabulaire de Gilles Deleuze*, 2003/신지영, 2012: 299)의 공저자 앙드리에외(Andrieu, B.)에 따르면 ‘욕망하는 기계’(machine désirante)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 안에서 기능하는(욕망하는) 기계는 주체성의 역동성을 묘사하는 한 양태이다. 이는 모든 구분과 규정에 앞서 그리고 그 아래에서 탈기관체(Corps sans Organes)를 활성화한다.”

‘욕망하는 기계들’에서 욕망한다는 것은 심리적 속성이 아니라, 어떤 힘의 보유 내지 살아 있음에 대한 들뢰즈와 가타리 나름의 표현이다. “그것은 ‘역능(potencia)’ 또는 ‘생명’ 또는 ‘잠재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이정우, 2008: 19) 어떤 기계도 그 하위 기계들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점에서 ‘욕망하는’ 기계로 표현된다. 생성의 이런 중층적 구조 덕분에 모든 기계들에는 미결정된 생명력과 잠재력이 존재할 수 있다. 앞서 우리가 본 베르그송의 잠재적 경향이 들뢰즈와 가타리에게는 ‘욕망하는 기계’로 바뀌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계’의 주체성이란 욕망 자체 혹은 생성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기계’의 기능은 무엇일까? “아이의 입-기계가 입과 가슴 간의 배치를 형성하여 엄마의 젖을 빨다거나 혹은 사람들이 회전식 문을 통과할 때에 지나가는 깔때기와 같이 그것은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에 개입하는(interrupt) 역할을 한다.”(Bogard, 2009: 16) ‘기계’는 물질적, 비물질적, 기술적, 상상적, 추상적인 ‘기계’들 그리고 ‘기계’ 속 또 다른 ‘기계’와 같이 프랙탈 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 마디로 다양체이다. 다양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실사(實詞)의 지위를 얻은 다자”(多者=le multiple, Deleuze et Guattari, 1980/김재인, 2001: 12)이다. 문장에서 주어의 자리에 있는 실체를 ‘서술하던’ -동사들- 것들이 주어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태가 바로 다양체이다. ‘생성하는-운동하는-연결하는’ 등과 같이 동사들이 연결되어 주어‘들’의 자리를 차지한 상태가 바로 다양체이다. 이것이 ‘실사의 지위를 얻은 다자’의 의미이다. 즉, 기계는 늘 생성하는 것이자 접속하기에 다양체일 수밖에 없다. 이는 실체가 여럿 있는 상태인 다양성(variety)과는 다르다. 다양성이 외적으로 구분되는 실체들이 여럿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면, 다양체는 외적인 구분이 불명료한 생성들이 얽혀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이로부터 들뢰즈와 가타리의 사유가 칸트식의 건축적 사유와 확연히 구별되는 상호 규정의 특성을 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양체와 기계 그리고 사건과 배치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는 거울 개념들이다.

다양체로서의 ‘기계’는 배치를 이룬다. 바로 ‘물질적 배치=기계적 배치=내용’과 ‘비물질적 배치=언표의 집단적 배치=표현’이 그것들이다. ‘기계’는 물질적인 면과 비물질적인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뒤에서 논하겠지만, 기계의 물질성과 비물질성은 고정된 구성요소나 유기적 총체성 속에서 인과관계를 통해 작동하지 않는 열린 성격을 갖는다. 우선 기계적 배치와 언표적 배치, 곧 “내용과 표현은 실재적으로 구분된다. 그럼에도 밀접한 관계(비관계의 관계)를 맺는다.”(이정우, 2008: 84) 예를 들어, 감옥이나 재판소와 같은 건물들, 판검사,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은 기계적 배치(내용)를 이루는 반면, 법학, 법의학, 사법 체계 등의 담론은 언표적 배치(표현)를 이룬다. 내용과 표현은 각각 실체와 형식을 가진다. 감옥은 그것의 실체인 벽돌이나 창살을 가지는가 하면 건축 양식과 공간 배치 등의 형식을 갖는다. 법학은 그것의 실체인 책과 말을 가지면서도 법학의 내용 자체랄 수 있는 형식을 가진다. 우리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내용과 표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설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¹⁾

1) “차이는 하나의 형상 안에서, 다시 말해서 유기적 재현의 일관된 요소 안에서 규정을 다른 규정들과 묶을 수는 없는가? ‘이유raison’에 해당하는 재현의 요소는 네 가지 주요한 측면들을 지닌다 - 규정되지 않은 개념의 형식 안에서 등장하는 동일성, 규정 가능한 개

기계적 배치는 그것을 일종의 유기체로, 또는 기표적 총체로, 또는 한 주체에 귀속될 수 있는 하나의 규정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층들로 기울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끊임없이 유기체를 해체시키고, 탈기표적 입자들, 순수 강도들로 하여금 이행하거나 순환하게 만들고, 스스로에게 주체들을 귀속시켜 하나의 강도의 혼적으로서 이름만을 남기게 만드는 탈기관체로 기울어지기도 한다.(Deleuze et Guattari, 1980/김재인, 2001: 12-13)

들뢰즈와 가타리의 잠재성은 반드시 물질성을 동반한다. 물질적 배치가 구체화되면 층화되는 것이지만 반대의 방향, 곧 잠재성을 머금은 방향으로 가면 탈기관체로 기울어지는 것이다. 탈기관체는 날 때부터 주어진 유기체의 기관들의 질서를 재배치하는 - 제거하는 것이 아닌, 만일 제거한다면 그것은 마약에 찌든 사람과 같은 상태로 갈 것이기에- 생성 혹은 운동을 가리킨다. 물체에서 실체를 거쳐 물질성 자체로 돌아가는 운동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처럼 ‘기계’들은 어떤 배치와 접속을 이루느냐에 따라 층화와 탈기관체화라는 양방향의 운동을 펼친다. 이렇듯 ‘기계’는 고정된 사물(thing)과 달리 역동성을 띤 다양체라는 점에서 그 주체성은 생성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에 개입하는 ‘기계’, 다양체로서의 ‘기계’는 결국 ‘되기’(devenir)를 동반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되기’가 상상적인 것도 상징적인 것도 아닌 전적으로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되기’는 상이한 중, 곧 상이한 균집이 마주칠 때 그 가장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형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말벌과 양란의 공생, 꼬마 한스의 말-되기, 늑대 아이들의 늑대-되기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내적 역량이 마주쳐 변형된 새로운

념들 간의 관계 안에서 성립하는 유비, 개념 내부적 규정들의 관계 안에서 성립하는 대립, 개념 자체의 규정된 대상 안에서 나타나는 유사성. 이런 형태들은 매개가 지닌 네 개의 머리 혹은 네 개의 끈과 같다. 말하자면 동일성, 대립, 유비, 유사성이라는 사중의 뿌리에 종속되는 한에서 차이는 ‘매개’된다.”(Deleuze, 1968/김상환, 2004: 88-89)

존재 양태들이다. “지각을 바꿔라.”(Deleuze et Guattari, 1980/김재인, 2001: 535, 강조는 저자) 머릿속 관념이 아닌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몸에 와닿는 감각을 경험할 때에 ‘되기’가 일어난다. “우리들은 계통 관계와 전염병을, 유전과 전염을, 유성 생식이나 성적 생산과 전염을 통한 서식을 대립시킨다. 인간 패거리이건 동물 패거리이건 하여간 패거리들은 모두 전염, 전염병, 전쟁터, 파국과 더불어 증식한다. … 반자연적 관여들, 반자연적 결혼들은 모든 왕국을 가로지르는 참된 ‘자연’이다.”(Deleuze et Guattari, 1980/김재인, 2001: 459) ‘되기’가 벌어지는 자연은 이질적 종들 간의 공생이 벌어지는 현상이다. ‘기계’에서 출발한 논의는 ‘되기’라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피어슨은 이들의 ‘기계’가 “진화 내에서의 참신하고 복잡한 생성을 설명해 내고자 메카닉적인 것(the mechanical)과 유기적인 것 모두에 반(反)하여 구멍을 낸 개념임을, 그리하여 기계/유기체의 구별을 혁신적이고 폭넓게 재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Pearson, 1997/최승현, 2019:17)고 말한다. 보가드 또한 “‘기계’는 다양체이다. ‘기계’는 기계론적이고 생기론적인 것으로의 어떤 시도에도 저항한다”(Bogard, 2009: 16)고 쓴다.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둔다면 인간과 기계의 공생 또한 ‘되기’의 한 양태로 볼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계’론은 이렇듯 일상적 의미의 메카닉적인 것을 넘어 유기화를 비판하는 가운데 새로운 생성의 선을 그려나가고자 한다. 자칫 혼란스러워 보이는 ‘기계’의 주체성에 관한 논의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현대적인 지점, 곧 클라우드 상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 절에서는 ‘기계’와 정보사회의 주체성이 생성으로의 열림과 자본에의 복속이라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정보사회와 배치의 교육학

1. 정보사회의 주체성

들뢰즈와 가타리의 세계에서 현실적이고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 실존이 아닌- ‘기계’의 주체성은 생성 자체이다. 다이고쿠 다케히코(大黒岳彦, 2016)는 정보사회에서의 주체성에 관해 논한다. 2015년, 휴머노이드 ‘페퍼’(Pepper)의 제품 발표회에서 공개된 동영상에는 실의에 찬 여성이 집에 들어서자 페퍼가 ‘까꿍’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펴는 장면이 나온다. 이를 본 여성이 울음을 그치는 모습은 이 로봇이 감정적 의사소통에 특화된 제품임을 알려준다. 페퍼는 대상의 감압과 진동을 감지하는 마이크로폰, 카메라 등의 센서를 통해 인간의 감정 데이터를 수집한다. 페퍼는 두 발로 걷고, 시선과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외부 디스플레이와 같은 채널을 통해 감정을 표현한다.

페퍼가 이전 세대의 로봇과 크게 다른 점은 이를 원격조종하는 것이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라는 점이다. 이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로봇과도 연결된다. 즉, 이전 로봇들이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에 따른 인터페이스 형태였다면 페퍼는 인공지능과 인간 간의 소통에 따른 인터페이스이다. 물론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페퍼는 이전 세대인 브룩스 형 로봇의 계보에 있다고 하겠다. 브룩스 형 로봇이란 알고리즘을 부여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여섯 개 이상의 다리를 조화롭게 맞춰 걸을 수 있는 성능을 갖춘 로봇을 말한다. 브룩스 형 로봇과 페퍼는 자가학습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면서도 페퍼는 인간의 지능작동 방식과는 다른 ‘탈인간화된’ 지능, 곧 빅데이터에 특화된 지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페퍼는 휴대전화를 로봇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에서 - 구글 글래스나 애플 워치의 발전선상에서- 개발되었다. 이 단말기들은 시계와 같이 인간이 의식 가

능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존재를 의식할 수 없는 빅데이터 수집이라는 이면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이면의 기능이 제품의 시장성에 관여한다. 예를 들어, 구글 글래스는 시선에 관한 데이터를, 애플 워치는 신체 데이터를, 트위터는 특정한 시간과 위치가 표시된(tag)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사건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수집하여 클라우드 상의 인공지능을 통해 이들을 해석해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가 본질적으로 익명적·비인칭적인 것이지만 앙케이트와는 달리 무의식의 발로나 표명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이는 정확하고 엄밀한 마케팅 재료가 된다.

페퍼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낸 시시각각의 감정에 관한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한다. 수집된 빅데이터는 다시 사용자에게 피드백된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공지능과 인간 간의 의사소통은 의식되지 않는다. 인터넷 등장 이전의 로봇과 이후의 로봇 - 페퍼로 상징되는- 은 이 점에서 크게 나뉘기 때문이다. 사실 페퍼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거기에 엄청난 계약이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인터페이스의 외관이 냉장고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기술적 수준을 포함해 사회적 수준에서 어떤 구조를 낳느냐에 있다. 인터넷 탄생 이전의 세계는 매스미디어로 상징되는 위계적·권위적 사회구조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통해 한 점으로 정보를 집중시켜 사회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연결주의와 로보틱스에서의 ‘포섭’(subsumption architecture)이 안착하여 위계적 구조가 병렬적이고 분산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변화하였다.¹⁾ 인터넷을 이용한 인공지능은 비인칭적 연산을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재귀적=자기언급적인’

1) 포섭구조란 로봇에게 기본적인 동작에게 제어해주고 높은 수준의 행동은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며 행동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잡한 행동을 하도록 일일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스스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복잡한 행동 패턴을 하도록 이끄는 방식을 일컫는다.(네이버 사전에서 2019.11.5. 발췌)

사회과정의 반복을 불러와 역동적 재생산이 가능한 사회체계를 일구어 낸다.

현재의 정보사회란 인공지능에 의해 확률론적이고 비결정론적으로 제어되는 의사소통의 자기언급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연속적 의사소통을 실현하는 하나의 환경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회의 단위요소는 어디까지나 비인칭적 의사소통 그 자체이다. 이는 무슨 말인가? 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중추=두뇌’가 아니다. 정보사회의 본질은 중추의 부재, 곧 네트워크의 노드(node=통신망의 분기점 혹은 단말장치의 접속점)가 중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지능의 문제 뿐 아니라 주체성의 문제에도 해당한다. 즉, 인간도, 인공지능도, 로봇도 자기언급적 사회재생산의 구체적인 한 계기일 뿐, 진정한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보사회자체인 것이다. 이 사회에서는 지능, 주체성, 자율성 모두 사회전체에 확산되고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결주의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는 신경망(뉴럴 네트워크)과 사회망(소셜 네트워크) 어디에나 있는 것(omnipresent)으로서,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을 개체 수준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이들을 개체 내 수준에서 닫힌 순수 지능으로 보고 ‘인간 대 인공지능’과 같은 단순구도를 만들게 된다면 결국 인간과 인공지능 중 어느 쪽이 앞서는가와 같은 특이점 논쟁 등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체성이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사회야말로 ‘포스트휴먼(post-human)’이 가리키는 대상이다.(大黑岳彦, 2016: 215-225 참고)

그렇다면 네트워크화된 정보사회는 어떤 문제를 가질까? 보가드(Bogard, 2009)는 들뢰즈의 ‘관리사회론’을 토대로 정보사회의 ‘관리-기계’에 대해 논한다. 일찍이 푸코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해 모든 공간을 감금장치화한 ‘훈육사회’에 대해 논한바 있다. 이 사회에서 학교, 공장, 직장, 감옥, 군대 등은 신분에 걸맞는 역할을 행하면 그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일종의 주물식(mold)이었다. 들뢰즈는 이 논리를 극단화한다. “관리사회는 가시성의 모델을 포기하고 분배된 네트

워크 간의 소통이라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장소의 경계를 로그인과 패스워드로 넘어선다. 이제는 당신의 정보가 장소마다 끊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재분배되고 복수의 네트워크를 통해 선별되며, 미세한 코드 변화를 통해 각 정보를 보존하여 연속적인 변이(modulation)의 효과를 낳기에 이른다.” 이 사회에서 비물질적 언표, 곧 코드(code)란 오로지 프로그래밍의 활성화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 사회가 추구하던 규범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즉, 빅데이터 중심의 정보사회는 ‘자본-기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자본주의 기계는 부호화(encode)작업을 해독(decode)하여 특정한 사회에 내재된 것을 이동시키고 바깥으로 열어젖힌다. 특히 자본은 이러한 코드들을 해독하여 흐름으로 대체한다. DNA 또한 해독되고 기록된다.”(Bogard, 2009: 19-21)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 정보 대신 특정한 패턴과 인지도(profile)가 수집되는 정보사회에서 우리에게 대한 감시 기능은 월등히 높아져 있다. 자본의 목표가 코드의 소멸이 아닌 유동적 코드를 생산해내는 일에 있다면, 그 해독의 목적은 사회적 코드의 제거가 아닌 기술공학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해독작업의 목표란 우리의 DNA를 혼육의 대상으로 삼는 일, 곧 모든 것을 단순하게 코드화된 정보로 환원시키는 일이다. 권력과 돈의 이름으로 생명 네트워크를 재분배하는 사회, 실시간으로 나노 테크놀로지가 작동하는 사회의 도래.”(Bogard, 2009: 21)

들뢰즈는 이런 사회를 뱀과 서핑에 비유한바 있다. 정면승부를 펼치는 사마귀 대신 소리도 없이 다가와 측면에서 공격하는 뱀, 규격이 정해진 경기장 대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서핑, “흐름의 논리에 입각한 기업은 감옥과 달리 모든 조직화의 모델이다 ... 엄격한 개별화를 대체하는 연속적이고 ‘탈형식화된’ 차이, 곧 분위기, 기운, 국면, 기후, 속도 등의 강도적 한도(intensive parameter)로 특징지어지는 가분체(dividual)의 논리 ...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유순함을 좇도록 사전에 잘 디자인된 사회.”(Bogard, 2009: 21-22) 푸코의 혼육사회가 집단의 논리를 수용한 개인을 인정했다면, 들뢰즈의 관리사회는

그 개인을 쪼갤 수 있는 존재 -가분체- 로 바꿔 놓았다. 이 사회에서 학교는 영속적 훈련으로 대체된다. “우리는 더 이상 대중-개인 짝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 개인은 ‘가분체’로서 덩어리, 샘플, 데이터, 시장가치(market), 은행계좌이다.”(Deleuze, 1992: 5)

논의를 되짚어 보자. 먼저 ‘느린, 경험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학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질 자체의 윤리학을 사유하려는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관을 통한 지속의 의미, 다시 말해, 인간과 사물의 운동성을 시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 결과 우리는 마름질된 현실성과 생성하는 잠재성의 두 차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담지한 주체성은 바로 ‘기계’이다. 프랙탈 망을 이룬 다양체로서의 ‘기계’는 물질성과 언표성이 공존하는 일시적 존재와 같은 것으로서, 유기적 총체성보다는 열림과 접속의 원리를 따른다. 우리는 무의식적 수준에서 빅데이터를 모으는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기계’의 주체성에 부합하는 현상을 접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이 나온가, 인공지능이 나온가 식의 물음은 부차적이다. 오히려 클라우드 상에 떠있는 어디에서나 공유 가능한 이 사회의 주체는 채귀적 성격을 띤 정보사회 자체이다. 문제는 이 열림과 접속의 주체성을 띤 정보사회가 거대한 ‘자본-기계’의 논리에 복속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유전정보를 비롯한 모든 정보가 개인 이하의 단위에서 코드화된다. 클라우드 상에 편재한 정체성이 상품 가치에 따라 값이 매겨지는 사회.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계’론을 반영한 배치론을 살펴보고 배치의 교육학을 모색해보기로 하자.

2. 배치의 교육학

우리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탈인간을 논하는 존재론적 조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중에 있다. 이 절에서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배치론을 응용한 마누엘 데란다의 ‘실재론적 사회 존재론’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배

치의 교육학'의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그는 사회에 대한 “유기체 은유 (organismic metaphre)만큼이나 견고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 이는 “유기체 전체를 위해서 신체 기관들이 함께 작동하듯이, 사회 조직의 기능도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조화롭게 작동한다고 간주된다”는 입장을 지칭한다. 많은 전통 사회이론이 유기체 적 사회를 상정해 왔다. 사회에 대한 유기체 은유는 전체주의를 정당화하곤 했다.

그러나 배치론에 입각한 실재론적 사회 존재론은 유기적 총체성과 달리 배치의 부분들이 매끈한 전체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이 이론의 특징은 전체가 외부성의 관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관계들의 외부성이란 그 관계들이 관계 맺은 항들(terms)이 일정한 자율성을 띤다고 보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들뢰즈와 가타리가 즐겨 사용하는 식물 간의 공생이나 수분(受粉)하러 다니는 곤충들과 같은 사례에서 관계는 ‘우발적으로만’ 정해진다. 다른 종의 공진화와 같은 경험적 물음과 우발적인 관계는 짝을 이룬다.(DeLanda, 2006/김영범, 2019: 21-25 참고, 강조는 저자)

외부성이란 실제 진화 과정의 우발성을 가리킨다. 이 논의는 “최소와 최대 사이의 연결 고리”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창발(emergence) 기제와도 관계 깊다. 이는 사회적 과정들이 최대 혹은 최소 수준에서만 발생한다는 생각을 제거하는 입장이다. 즉, 개인 혹은 전체로서의 사회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규모의 사회도 특이성(singularité) 내지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규모의 크고 작음은 다만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규모의 사회적 존재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과 과정을 인정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구조화된 공동체들은 자기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정치 연합을 구성할 수도 있고 어떤 조직들은 더 큰 정부 체제의 부분으로 상호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더 큰 배치 들은 정치 연합의 일부가 됨으로써 다수성과 단일성에서 나오는 정당성과 같은 자원을 공동체에 제공해 준다고 정의된다는 의미에서 창발적 전체들이 다.”(DeLanda, 2006/김영범, 2019: 61-70 참고, 강조는 저자)

사람들의 배치가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한다는 점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맺어진 더 큰 네트워크들이 각각의 인과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배치론의 일차적 방점은 흙이 말하는 하나하나의 인상, 개체가 드러내는 감각적 - 시각, 후각 등- 인 특성들을 근원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으로서, 이는 인상들의 이질성과 환원 불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실재적 사회 존재론’은 규모가 크든 작든, 단일한 개인이든 거대한 정부이든 간에 그 단위의 특이성을 인정하면서 네트워크가 상호작용 할 때 발생하는 우발성을 고려한다. 바꿔 말해, 배치론에서 존재는 두 가지 측면, 곧 현실적 상태와 잠재적 상태를 갖는다. 전자는 상이한 규모의 사회적 배치가 개별적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반면 후자는 현실적 배치들이 특정한 시간 속에서 잠재적인 다이어그램에 따라 제한되고 열릴 가능성을 가리킨다. 잠재적 상태야말로 사회에 대한 유기체 은유를 벗어날 가능성을 제공하는 실재적 공간이다. 또, 배치론에서 시간을 주요 변수로 둔다는 점은 항상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 곧 상호작용으로 표현되는 양상에 주목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데란다는 훌륭한 배치론의 사례로 어빙 고프먼과 페르낭 브로델의 연구를 거론한다. 그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각기 다른 구성 부분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질성을 존중하면서 연동시키는 합창이 되도록 뼈대를 제공해”(DeLanda, 2006/김영범, 2019: 198) 주길 희망한다. 먼저, 어빙 고프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언표적 배치에 관한 훌륭한 사례이다. 사람들의 만남에서 벌어지는 눈길, 몸동작, 위치 잡기 등의 행동은 “사회 조직이라는 면에서 검증되지 않는 지향과 개입의 외부적 기호들이다.” 대화의 구성 요소들로 환원되지 않는 대화의 속성은 “의례적 균형”(ritual equilibrium)으로 불린다. 이는 말을 더듬는 사람을 조롱한다거나 틀린 말을 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당혹스러운 상황을 피하려는 노력을 가리킨다.¹⁾ 대화에서 언어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이 “공존”한다는 점에 대한 인

1) “**체면(face)**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동안 그들이 짐작하는 노선대로 자

식. 이는 원격 의사소통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구 주제를 형성하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연결 고리의 패턴이나 그러한 연결 고리의 속성들이다.”(DeLanda, 2006/김영범, 2019: 95-99 참고, 강조는 저자)¹⁾

내러티브는 집단 경계 구성 과정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민족 공동체의 경우, 정체성을 강화하는 이야기와 범주는 주로 경계에서 발생한다. 툴리가 주장하듯이 “다른 이슬람교도들이 당신이 이슬람교도임을 부정해도 사실상 이슬람교도가 될 수 있고, 틀림없이 유대교도의 경계에 있더라도 이슬람의 범주로 계속 분류된다.” 배치론의 용어로 말하자면, 충돌의 이야기들(그리고 이야기와 연관된 내부자와 외부자에 관한 범주)은 코드로 작용해서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에서 영토화의 효과를 강화한다.(DeLanda, 2006/김영범, 2019: 104)

한편, 기계적 배치에 관한 것으로는 페르낭 브로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파리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절 높은 층에 살수록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반면, 엘리베이터가 생긴 이후 관계가 역전된다. 마천루가 들어선 뉴욕의 경우 엘리베이터는 단일한 기업이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구였다. 하나의 건물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빠르게 의사소통하고자 한 것이다. 도시 지리학자 제임스 반스(James Vanc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금융가에서는 기계식 승강기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일 한 조직이나 공통적으로 연

기를 표현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라 정의할 수 있다. 체면은 개인이 남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사회적 자질을 지닌 존재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자아 이미지인 셈이다. 물론 그 이미지는 자기를 위한 성취가 소속 직종이나 종교의 성과로 이어질 때처럼 남들이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다.”(Goffman, 2008/진수미, 2013: 18, 강조는 저자)

1) 김현경(2015)은 사회적 승인을 받은 존재로서의 ‘사람됨’을 어빙 고프먼의 논의를 활용하여 탁월하게 묘사한바 있다. 군인은 전쟁 시에는 물건이며, 태어는 태어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이며, 외국인인 관광객일 때에만 안정적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관된 적당한 숫자의 조직에 속한 다소 분명하고 확정적인 고용자 집단이 상당 부분 내부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Vance 1990: 416)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상징이 마천루인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도 시장은 중요한 기계적 배치의 요소였다. “작은 시장 마을, 혹은 장터의 부지, 그 주변에 딸려 있는 마을들로 이루어진 복합체. 각각의 마을은 하루 안에 시장에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야만 한다.”(DeLanda, 2006/김영범, 2019: 37 재인용) 이러한 형식들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곧 중심지들의 위계성은 지리학자들에게 친숙한 것으로서,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중심성을 상실하면 그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 또한 변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1945년 이후 많은 나라에서 교외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면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쇼핑센터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배치적 접근 방식은 브로델과 잘 어울리는데, 그는 ‘집합들의 집합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회 전체를 각기 다른 규모로 자율성을 부여받아 움직이는 것으로 보면서도 거기에 매끈한 전체라는 상(像)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고프먼과 브로델의 연구는 반복되는 패턴, 언어성과 물질성의 공존, 경계에 대한 주의, 총체적 전체에 대한 부정과 같은 면에서 배치론과 공명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과학적 시각, 곧 배치론의 시각에서 ‘배치의 교육학’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보가드(Bogard, 2009)는 ‘교육-기계’(education machine)에 대해 말한다.

기능은 언표적 배치의 형식으로서, 단순히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만이 아닌 ‘말하는 바, 뜻하는 바’를 알려준다. 이를테면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배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언표적] 해석이 없다면 교육으로서의 기능도 무의미하다. 이 해석들은 지식과 진리에 대한 진술, 권력과 욕망 또는 기표 체제와 예속 주체화의 문제 등이 결합된 사회적 총체이다. 교육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서 기계적 배치 - 상이한 시간과 교실 배치, 시험

방법, 교수활동 관행, 학생 분포 등-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교육-기계’를 구성하는 이 기계들 모두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물음을 품고 있다.(Bogard, 2009: 16)

일상 기계와 다른 ‘교육-기계’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총체이다. 이것은 유기체는 유로서의 단일 사회라는 의미와 달리 물질 수준에서 언표 수준에서 이르는 총체적인 성격을 아우른다는 의미에서의, 즉 단순한 도구나 상징에 갇히지 않은 총체로서 ‘교육-기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가드는 ‘교육-기계’에서 기계적 배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들뢰즈가 기술을 단지 ‘기술론적인’ 것만이 아닌 사회적인 것으로 본 것처럼, 기술은 인구와 작업 조건 그리고 기후와 계절 등이 결부된 인간적인 혈통을 지니고 있다. 쟁이와 쟁기는 합리적인 이유만이 아닌 농한기나 인구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결부된 집합적 기계인 것이다. “브로델의 경구인 ‘도구란 결과물이 아닌 원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따라 진짜 문제시되는 것은 집합적 ‘기계’의 배치이지 기술적 객관성이 아니다.”(Bogard, 2009: 23) 학교의 건물, 운동장, 복도 구조 등이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은 미셸 푸코가 이미 섬세하게 밝힌바 있다. 17-8세기에 유럽의 학교와 공장 등은 뚜렷한 영역화와 연결성을 띠기 시작한다. “감금과 포위를 위한 과거의 단순한 계획 - 출입을 통제하는 두꺼운 벽과 육중한 문- 은 구멍들, 가득 차거나 텅 빈 공간, 통로와 투명 유리를 염두에 두면서 대체되기 시작했다.”(Foucault, 1979: 172)

‘교육-기계’는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능을 넘어 “비물질적 생산물들, 다시 말해 아이디어, 지식, 의사소통, 감응, 사회적 관계를 낳는다.” 이 생산물의 부정적 형태가 바로 생명권력으로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관리사회의 문제와 통한다. “생명권력은 영구내전과 같은 상태, 곧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예외주의와 일방적 핵폐기주의, 고강도의 치안, 선제공격에 의해 통치된다.” 영구내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상 전지구적 수준의 치안의 개입에 대한 정당화이

다. “그것은 군사적 문제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및 문화적인 문제와 건강, 섹슈얼리티, 교육을 아우른다.” 만일 들뢰즈가 말하는 관리 개념이 통합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관리사회의 ‘정치학’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관리 네트워크에 대한 실험이란 공통적인 것을 어떻게 연결 짓느냐의 문제로서, 이 질문은 ‘탈기관제’를 통해, 다시 말해 탈형식화된 물질과 흐름으로만 공통적인 것을 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생명권력=제국’에 “생명 정치적 생산”(Bogard, 2009: 25-30)을 맞세우기.

가르치는 일이 결코 학습자의 배우는 일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다는 교육의 불완전성은 역으로 인간 문명사에 창발성을 선물로 주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교수학습활동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돌연변이 현상에 따른 정신사의 변형이야말로 복잡계로서의 교육이 지닌 특징을 잘 보여준다.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학습은 자기 진화하는 모든 생물(심지어 인공지능까지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그들이 환경과 맞대고 살아가는 가운데 적응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 생명 메커니즘”(한승희, 2019: 125)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교육현상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현상이란 교수행위와 학습행위의 비대칭적 소통과정으로서의 교육활동이 만들어내는 동시대적/집합적 패턴과 함께 그러한 패턴이 시간의 계열 속에서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변형되어가는 양상으로서의 교육체계를 동시에 포함한다. 논리적으로, 활동이란 특정인의 개별적이고 유연적 행동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공유된 문화적 행동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체계란 인간 활동이 시간으로 축으로 반복되고 안정화되어간 결과물이며, 시간의 축을 통해 그 형성과 이행과정이 설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교육체계는 교육활동의 시간적 궤적이 만드는 안정화적 작동체계이며, 교육활동과 별개로 전제되지 않는다.(한승희, 2019: 52)

시간 속 패턴의 반복과 변형이라는 아이디어는 마뚜라나와 바렐라의 논의에서 온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생명의 진화는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 아닌 ‘자연표류’(natural drift)에 입각해 있으며, 이에 따라 이해된 학습은 ‘내면화’가 아닌 ‘구조접속’의 문제이다. 자연선택은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으로 오염되어 나치의 우생학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최적자선택’(survival of the fittest)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과 기묘하게 혼합되어 ‘변이’(variation)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자연선택이 대중에게 잘못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

마뚜라나와 바렐라는 변이의 우선성에 입각해 하나의 종의 진화는 하나의 기원에서 출발하여 다양하게 분기하기가 환경에 적응한 것들이 남게 된다는 - 거기에는 어떤 목적도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화산폭발의 비유를 든다.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이리저리 흘러내리듯, 생물의 진화 또한 다양한 분기점들을 돌아 나온 끝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용암이 흘러 내리는 과정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다. 이런 시각 아래에서 ‘작동적 폐쇄성’, 곧 유기화되고 일정한 재귀적 순환구조를 갖춘 유기체가 존재하며, 나아가 하나의 계(界)로 인정받은 개별 유기체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군집=사회’를 이루는 현상을 ‘구조접속’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조접속이라는 아이디어가 학습과 관계 깊다는 사실이다. 즉, 교육학에서는 학습을 전통적으로 주체가 객체를 개념 안으로 포섭하는 - 즉, 이성이 관장하는- 작업, 다시 말해 칸트식의 ‘내면화’과정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마뚜라나와 바렐라의 논의를 수용한다면 각 개체와 환경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상호작용하는 관점에서 학습을 볼 수 있게 된다. “학습을 이렇게 오해한 이유는 지금까지 학습을 동물 혹은 인간의 기억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현상으로 국한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학습은 하나의 자율적 단위체계가 그 경계 밖에 있는 환경을 감지하고, 읽어내며, 그것에 대해 모종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 융통성 있는 과정으로 재규정되어야 한다(한승희, 2019: 155),” 들뢰즈 또한 학습을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한다.

배움(apprendre)은 단지 앎(savoir)과 무지(non-savoir) 사이의 중간단계, 무지에서 앎으로 이르는 그 활력에 찬 이행 과정일 뿐이다. ... 앎에 대해 가정된 그 단순한 본질 ... 궁극적으로 배움은 미로 속에 빠진 쥐의 상황으로 전략하는 반면, 동굴 바깥의 철학자는 그 결과 -앎- 만을 취하여 초월론적 원리들을 이끌어낸다. ... 사유의 초월론적 조건들은 앎이 아니라 '배움'을 기초로 조성되어야 한다.(Deleuze, 1968/김상환, 2004: 365)

들뢰즈는 푸코가 주목했던 '앎에의 의지', 곧 누군가가 타자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는 활동으로서의 앎과 자신의 배움을 대비시킨다. 들뢰즈가 보기에 기존의 학습에 대한 논의, 다시 말해 지식의 내면화로서의 학습은 푸코가 비판하는 앎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는 행동주의나 사회적으로는 언어로 환원 가능한 해답으로 표현되며 결국 권력을 강화하는 일에 활용된다. 반면 마뚜라나와 바렐라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생물학적-철학적 근거를 제출한다. 즉,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인식 활동에 다름 아니라는 통찰이야말로 그 자체로 생물 다양성을 긍정하는 논리인 것이다. 우리는 그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으로, 반면 생각한다는 것은 이를 뛰어넘는 고등의 활동으로 분리하여 학습을 이 층위에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생물은 생존에 적절한 만큼만 자신의 몸을 환경에 적응시켜왔으며 이것 자체가 인식의 산물인 것이다. 삶과 앎의 피비우스적 관계에 대한 통찰.

이와 같이 최근의 학습 담론은 전통적인 지식의 내면화를 넘어 지식의 전수가 가진 근본적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생물의 다양성을 긍정하는 방향 위에 수립되고 있다. 이는 창발, 자기조직화 등을 강조하는 복잡계 이론과 맞물려 풍요로워지고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배치의 교육학' 또한 이들 논의와 공명하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생태계 전체에 주목하면서도 인간 내면에 잠재된 자발성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인간 경험의 우발성, 인간

이 타자와 만나는 지점들에 대한 논의, 우리의 맥락에서는 느리고 경험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 결국 이러한 관심은 살과 피를 가지지 않은 인공지능 로봇으로 상징되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맞물려 우리의 일상 앞에 바짝 다가와 있다.

VI. 맺음말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기한 ‘느린, 경험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학에 대한 잠정적 대답은 ‘배치의 교육학’이다. 배치론에 입각한 사회과학은 반복되는 패턴, 언어성과 물질성의 공존, 경계에 대한 주의, 총체적 전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우리는 이 사회과학적 특징을 교육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 생명정치적 생산으로서의 ‘교육-기계’는 배치의 교육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초로서, 집합적 패턴이 시간의 계열 속에서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변형되어가는 양상에 주목한다. ‘집합적 패턴’, ‘시간의 계열’, ‘변형되어가는 양상’ 등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안한 직관을 통한 지속을 출발점으로 파악된다. 지속은 정도 상의 차이만을 표상할 뿐인 단선적 기계론 모델을 비판한다. 출발점과 끝점을 상징하는 기계론과 달리, 시간 속에서 형성된 특정한 경향들은 마름질된 현실성과 생성하는 잠재성이라는 두 영역을 낳는다. 우리는 예술가들이 작품과 삶을 통해 직관으로서의 지속을 형상화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결코 빠르거나, 관념적이지 않다.

느리고 경험적인 교육을 위한 주체성은 ‘기계’로 표현된다. ‘기계’는 늘 욕망하는 혹은 생성하는 기계인바, ‘기계’의 주체성이란 생성 자체이다. 곧, 생성의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정보사회의 주체성 또한 정보사회 자체이다. 클라우드화된 빅데이터들은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디에나 존재하기에 말이

다. 여기서 인간이 우수한가, 인공지능이 우수한가와 같은 물음은 부차적인 것이다. 한편 정보사회는 관리사회이기도 하다. 관리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무의식적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생명권력으로 점철될 위험을 안고 있다. 정보사회는 위계화된 엘리트중심의 사회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 했지만, 빅브라더에 의해 통제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기계’와 정보사회의 주체성은 전통적인 행위 주체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또 새롭다.

‘기계’는 배치를 이룬다. 배치는 물질적인 기계적 배치(내용)와 비물질적인 언표적 배치(표현)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교육-기계’라는 말 속에는 학교 건물, 교사, 학생, 교육에 필요한 도구 등의 물질과 행정지시, 수업 중의 발문, 학생의 대답 등과 같은 언표가 공존한다. 말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거기에 담긴 의미의 중요도가 늘 문제시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육-기계’라는 개념을 통해 ‘배치의 교육학’을 위한 조건들을 시론적 수준에서 논하였다.

인류는 언젠가 살과 피를 가진 인간 대신 9할이 기계인 존재로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망에는 수 만 년을 이어온 자연적 진화에 비해 자가학습이 가능한 기계의 우월성에 대한 단선적인 이해가 내재되어 있다. 물론 이는 인류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바람직하고 또 예측 가능하다. 기술의 발전 앞에서 철학은 무의미한 저항을 하고 있는 걸까? 만일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시한 ‘기계’에 대한 사유가 물질적인 조건(잠재성)과 사회적인 조건(현실성)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전도유망한 포스트 휴먼 시대에 빠르고 의기양양한 문화적 훈육으로서의 교육을 해독(解毒)해내는 것은 바로 ‘느린, 경험적인 교육’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경(2015).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정우(2008). *천 하나의 고원*. 파주: 돌베개.
- 한승희(2019). *교육이 창조한 세계*. 파주: 교육과학사.
- 大黒岳彦(2016). *情報社會の哲學: グーグル・ビッグデータ・人工知能*. 東京: 勁草書房. 최승현 역(2021). *정보사회의 철학: 구글·빅데이터·인공지능*. 서울: 박영스토리.
- Bogard, W.(2009). *Deleuze and Machines: A Politics of Technology?*. Poster, M. and Savat, D.(ed). *Deleuze and New Technolog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5-31.
- Cole, D.(2011). *Educational Life-Forms: Deleuzian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 Rotterdam: Sense Publishers.
- Darwin, C. R.(1859).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u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장대익 역(2019). *종의 기원*. 서울: 사이언스북스.
- Deleuze, G.(1968).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aris: PUF. 김상환 역(2004).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 _____.(1992).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 October 59. 3-7.
- Deleuze, G. et Guattari, F.(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2*. Paris: Minuit. 김재인 역(2001).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2*. 서울: 새물결.
- Foucault, M.(1979).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Prison*. New York: Vintage Books.
- Goffman, E.(2008). *Interaction Ritual: Essays in Face-to-Face Behavior*. 진수미 역(2013). *상호작용 의례: 대면 행동에 관한 에세이*. 파주: 아카넷.
- Manuel DeLanda(2006). *A New Philosophy of Society: Assemblage Theory and Social Complexity*. New York and London: Continuum. 김영범 역(2019). *새로운 사회철학: 배치 이론과 사회적 복잡성*. 서울: 그린비.
- Maturana, H. R. and Varela, F. J.(1984). *El árbol del conocimiento*. 최호영 역(2007). *삶의 나무: 인간 인지능력의 생물학적 뿌리*. 서울: 갈무리.

- O'Sullivan, S.(2006). *Art Encounters Deleuze and Guattari*. New York and London: Macmillan Publishers. 안구·이규원 역(2019). **현대미술 들뢰즈·가타리와 마주치다**. 서울: 그린비.
- Pacini-ketchabaw, V. and Kocher, L. and Kind, S.(2016). *Encounters with Material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Pearson, K-A.(1997). *Viroid Life: Perspectives on Nietzsche and Transhuman Condi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최승현 역(2019). **바이로이드적 생명: 니체와 탈인간의 조건**. 서울: 그린비.
- _____(1999). *Germinal Life: The difference and repetition of Deleuz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이정우 역(2005). **썩트는 생명: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서울: 산해.
- Robinson, K.(2015). *Creative Schools: The Grassroots Revolution That's Transforming Education*. 정미나 역(2015).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학교혁명**. 서울: 21세기북스.
- Rose, T.(2015). *The End of Average*. 정미나 역(2018). **평균의 종말**. 서울: 21세기북스.
- Vance, Jr.(1990). *The Continuing City: Urban Morphology in Western Civilization*. Bo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Villani, A. and Sasso, R.(2003). *Le Vocabulaire de Gilles Deleuze*. 신지영 역(2013). **들뢰즈 개념어 사전**. 서울: 갈무리.

Abstract

Deleuze and Guattari's Machinism and Pedagogy of Assemblages

Choi, Seung-hyun

Seo, Beom Jo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Deleuze and Guattari's Machinism and Pedagogy of Assemblages. A slow, empirical process offered by Deleuze and Guattari is possible only if they experience a repetition of the duration in time. The identity of this world, a combination of potential and reality, is expressed as a machine. The identity of the 'machine' is the generation. The identity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at exists everywhere in the cloud and unconsciously collects big data is also the information society. The information society is at risk of leaning toward a society in which individual desires are managed prior to the manifestation of a self-reliance a machine consisting of unmarked and mechanical arrangements. Social science based on the theory of layout shares the characteristics of repetition patterns, coexistence of linguistic and materiality, attention to boundary and negation to total whole. The pedagogy of layout, in which the collective pattern is structurally deformed in time, conforms to the original problem consciousness of Deleuze and Guattari, slow and empirical education. In addition, the work of examining the materiality and expression of the education-machine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learning theory, an educational theory in the era of trans-human.

Keywords: *Trans-human, Deleuze and Guattari, Machine, Assemblages, Pedagogy, Information Society.*

논문투고일자: 2022.04.01.

논문심사일자: 2022.04.20.

게재확정일자: 2022.04.21.